



제 7 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성료 포천 산정호수에서 250여명 참가



본회는 지난 7월 15~16일 1박2일 동안 포천군 산정호수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 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포천분회(분회장 원승재)가 주관한 이번 수련대회는 임직원의 유대 강화와 양계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협회조직 확대와 양계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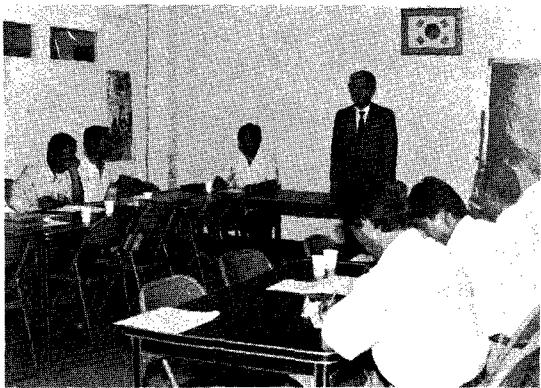
만찬회, 장기자랑, 제비뽑아 지정된 물품 찾아오기, 계란탑쌓기, 디스코경연대회, 고무풍선 터뜨리기, 계란나르기, 등산대회 등 다양한 게임이 각 도지부, 경기, 중부 등 10개팀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대회에서 종합우승은 각종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낸 광주채란분회가 준우승은 가평육계분회, 장려상은 전북지부, 공로상은 경기C팀(수원, 용인, 이천, 부평, 김포채란, 고양분회)이 각각 차지했다. M.V.P상은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한 광주채란분회 최운집씨가 차지했다.

마지막 날은 땅굴견학을 통해 단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포천육계분회 임성진(부분회장), 이용직(영북양계협업단지장)씨가 포천, 연천지역 국회의원상을 포천육계분회 안영덕(부회장), 양기원(육계업), 배수명씨(채란업)가 포천군수상을 수상했고, 본회 공로패는 박이도(경남지부 운영위원), 조동필(경북지부 난가조절위원), 박홍길(전남지부 육계 수급조절 위원), 이희성(전북지부 상무), 강신구(홍성분회장), 강용식(천안육계분회장), 김원태(포천육계분회 운영위원)씨가, 감사패는 이은종(포천군청 축산계장), 신상호(포천실업고등학교 주임교사)씨에게 각각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행사는 회장단 및 포천육계분회가 협찬하였고, 각지부분회 및 유경축산, 세화원종, 양지화학, 삼양케이지, 계명정판사, 성창기획에서 후원하였다.

양계 자조금 사업을 위한 지부·분회 장 회의 개최 자조금 사업 취지 전 양계인들이 알아야



양계 자조금 사업을 위한 지부·분회장 회의가 지난 7월 8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92 자조금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회원을 비롯한 전 양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목표액인 3억원이 적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및 당면 주요 현안사항 설명을 통해 각 지부·분회 소속위원들에게 본 목적을 주지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회는 앞으로 각 지부·분회별 행사개최 시 본회 직원이 방문, 자조금사업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값 호황, 당분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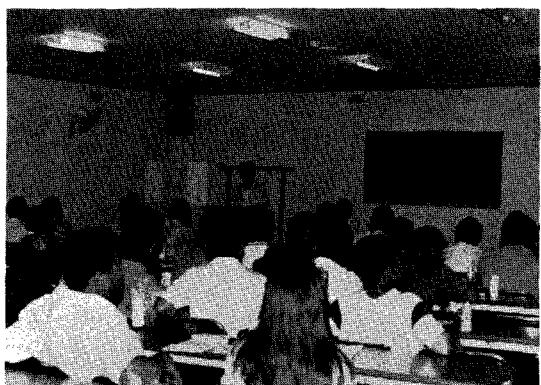
7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복 직후 상승세를 보

이며 kg당 1,000원선을 유지해온 육계값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1/4분기에 육용종계의 다수 입식과 5월 강제환우를 실시한 계군에서 생산될 다수의 병아리를 모두 입추할 경우 후반기 육계값은 폭락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지난 6월 육계값 폭락시 6개 전문지에 발표된 호소문에 대한 광고료는 육계분과 기금으로 대처시키고 세부사항은 다음 월례 회의시 확정키로 하였다. 다음달 분과위원회는 활성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오는 8월 14일 천안에서 육계인대회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계란 체화, 소비감소 우려



7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5일 포천군내 유스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협회 임직원 수련대회 행사 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5월 계란가격 폭락시 강제환우시켰던 다수계군들이 생산에 적극 가담하면서 많은량의 계란이 체화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반면, 하절기 소비는 감소될 것으로 보여 계란값은 8월초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난중이 가벼워져 특란하락보다 대란이하의 가격인 하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수입쿼터량 소진상태

7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종계 수입쿼터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업자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인해 조기출하현상이 나타난다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논의되었다.

신입직원 채용



△ 이영오

본회 편집부에 근무하던 이창훈씨가 의원 면직됨에 따라 신입직원 이영오(연암 축산 원예전문대학 졸업)씨를 7월 1일부로 채용 했다.

알리는 말씀

선진양계산업을 선도해 가는

「월간양계」지는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사양관리기술, 품질고급화, 정책개발,
조직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매월 1회 발행하여 본회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기반 점검, 상품화, 유통개선에
보다 넓은 정보를 전달하여 양계
산업이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월간양계」지는 회원이 되시면

무료로 우송이 되고 있으며, 비회원은
연 35,000원 이상의 협찬자에
한해 증정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전달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발행되는

「월간양계」지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